

신남방정책의 추진과 중소기업의 아세안시장 진출 전략

| 외부 필진 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곽성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차

1. 신남방정책의 의미와 필요성	02
2.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현황	06
3.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 현황	07
4.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	10



중국은 아세안과 인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일대일로이니셔티브(BRI)를 추진 중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인도, 호주와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QUAD)’을 펼치면서 중국의 태평양 확장을 저지하고 있다. 두 거대 구상이 한반도 주변에서 부딪치면서 우리나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한편 이러한 거대 구상에 맞서 중견국으로서 한국도 당당하게 거대구상을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2017년 세계 GDP 규모 1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일본과 중국의 거대 구상에 대응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역량을 강화해 나갈 시점임을 인식한 것이다. 신남방정책은 이런 인식과 결을 같이 한다. 또한 신남방정책은 미·중·일·러에 지나치게 의존된 경제, 외교, 사회문화적 관계의 다변화를 통해 아세안과 인도를 주변 4국 수준으로 격상하고 독자적 생존공간의 확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본 고는 먼저 신남방정책의 의미와 필요성, 지역적 범위 및 경제협력 현황을 고찰한다. 그리고 아세안 지역의 가치와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한다.

1. 신남방정책의 의미와 필요성

가. 신남방정책의 의미

- 동아시아는 세계의 성장엔진이자, 군비경쟁, 영토분쟁, 핵개발 등 다양한 대립과 갈등이 공존하는 지역임.
 - 동아시아의 정치안보적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새로운 다자체계의 형성을 지향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을 밝혔고, 그 안에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이라는 두 개의 화살을 제시함.
 - 신남방정책은 결국 신북방정책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안보적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조성이 목적임.
-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표된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배후지로 남방지역과 북방지역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한반도가 북방 및 남방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기능한다면 미·중에 의존적인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번영의 축을 건설할 수 있음.

- 한반도를 통해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 연계한다면 아시아의 발전에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음.
- 신남방정책은 우리 주변국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플랫폼이자 경제 및 외교 다변화 전략임.
 -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주권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아세안에 대해 우리는 위협대상이 아니라, 식민지배 경험을 극복하고 성장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의미를 지님.
 - 2017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불거진 중국의 비시장적 조치와 함께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대두는 미·중에 편중된 외교 및 경제 관계를 다변화할 필요성 증대함.
 -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주변 4국(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가치 발굴을 강조함.
- 미·중 통상 분쟁이 격화되는 최근 국제통상질서 속에서 신남방정책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선제적 지역 전략이자 생존전략임.
 -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중 간 무역 불균형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기술, 안보 등 다양한 문제를 중국에 제기 중임.
 -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중 간 무역 불균형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기술, 안보 등 다양한 문제를 중국에 제기 중임.
 - 뉴욕시립대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중 통상 분쟁이 한국에 단기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¹⁾ 유럽연합과 같은 역내 무역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 양 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는 결국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수출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국제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교역과 투자 관계를 형성 및 확대하면서 역내 공동체를 구축하여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야 함.
- 신남방정책은 미·중과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외교 협력 공간을 남방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역내 국가간 보완적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임.
 - 중국과 미국의 대외전략에 대립 또는 부정하기보다는 과거의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계 형성이 중요함.
 - 미국과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 및 생산기지로써 아세안을 볼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세안과 인도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포함하는 전략이 필요함.
 - 신남방정책은 주변 4국 및 아세안·인도, 그리고 북방지역과 함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균형있는 외교'에 기초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임.

나. 신남방정책의 필요성

-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면 특정국에 의존된 경제구조를 다변화하는 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이 필요함.

1) 매일경제신문, "폴 크루그먼 "세계무역 3분의 2 줄 수도... 한 큰 타격." 2018년 6월 27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06077>

- 지난 3년(2015~17년) 간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미·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1%,²⁾ 교역에서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한국의 교역 구조는 특정국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음.

■ 한편 아세안의 경제적 가치로부터 신남방정책의 필요성 인식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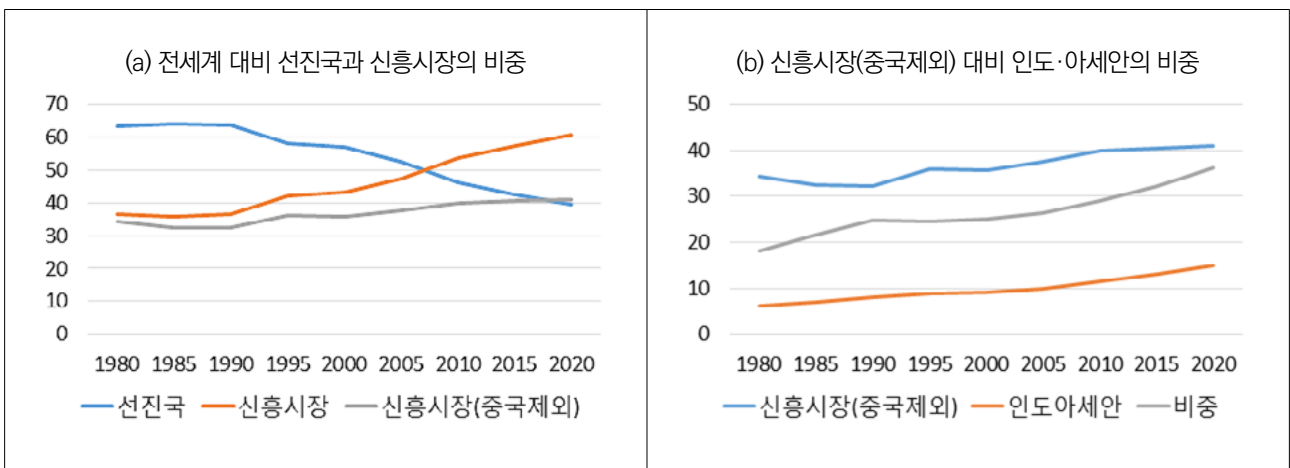
- 신흥 시장으로서의 가치 | 2007년을 기점으로 신흥시장의 GDP 규모가 선진국의 GDP를 추월함.

○ 2000년 세계 GDP에서 신흥시장이 차지하던 비중이 43.07%였지만, 2018년에는 59.25%에 이를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고,³⁾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 전체 GDP도 2019년에 선진국 전체 GDP를 추월할 전망이다(그림 1 참고).

○ 아세안과 인도의 GDP가 신흥시장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보면 1980년 18.2%에서 2020에는 36.1%까지 증가해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임.

○ 아세안은 2017년 현재 인구 6.4억 명, GDP 2.7조 달러의 거대 경제권으로 아직 시장으로 완전하게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성장세가 매우 빠른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다가올 미래에 대비

그림 1 전세계 GDP 대비 신흥시장 비중(PPP 기준)



자료: IMF DataMapper. 구매력 지수로 환산한 전세계 대비 GDP 비중
(<http://www.imf.org/external/datamapper/PPPSH@WEO/OEMDC/ADVEC/WEOWORLD>).

- 아세안의 높은 포용성 | 아세안은 존립토대인 아세안중심성(ASEAN Centrality)을 해치지 않으면 새로운 다자체제 형성에 매우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화를 강조함.

○ 아세안을 중심으로 아세안+1, 아세안+3, 아세안+6 등 다양한 체제 형성 및 운영,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동아시아 역내 다층적·다기능적 협력체 형성을 주도해 왔음.

○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2025’는 국제 및 지역기구 참여 및 다자간 거래 지원과 지역포럼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므로 인도-아세안-한국을 경제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협력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면 과거보다는 중국에 덜 의존하면서 지역적 보완성을 강화할 수 있음.

2) 한국무역협회, KITA.NET. <http://stat.kita.net/stat>. 해당 연도자료 활용

3) <http://www.imf.org/external/datamapper/PPPSH@WEO/OEMDC/ADVEC/WEOWORLD>

- 아세안의 다양성 | 아세안은 인구, 국토면적, 인종 등과 GDP를 포함한 발전단계가 상이한 10개국의 모임으로 2015년 말 출범한 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각국의 비교우위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 중임.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최근 '연결'되면서 생산활동을 세분화하고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선별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통해 산업집적지 형성 및 기술이전을 중시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의 이미 이노베이션 허브화가 진행 중이며, 저임 노동력보다는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강조함.
 - 상이한 비교우위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세안 스스로 연계성 개선을 통한 역내 개발격차 축소에 집중하고 있으며, 신남방정책도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스마트 인프라 개발을 통한 역내 연계성 개선에 기여하므로 아세안과 방향을 같이함.

다. 신남방정책의 추진경과

-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아세안과 인도에 대한 거대한 협력구상으로서 의미를 지님.
 -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VIP) 3국 방문을 계기로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3가지 공동체(3P Community), 즉 사람공동체, 더불어 번영하는 공동체, 평화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삼음.
 - 아세안과의 상생을 처음으로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구체적 사업제시와 추진체계가 명확하지 않았음.
-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신남방정책의 향후 사업 방향과 모습을 그리는 계기가 됨.
 - 베트남의 수요에 기반한 사업 가운데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분야를 주요한 사업 대상으로 부각함.
 - ※ 교역1000억 불 달성 액션플랜 MOU(소재부품, 자동차, 식품가공, 등 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
 - ※ 교통 인프라 구축 MOU 체결(한-베 교통인프라 협력센터 설치, 무역투자 기반으로서 인프라를 정의)
-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올 하반기 첫 순방지로 인도와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방문함.
 - 순방계기로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를 미·중·일·러 등 주변 4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 3P 공동체에 미래비전을 추가함.
 - 인도 순방에서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한국 신남방정책과 인도 신동방정책이 같은 곳을 지향한다는 데 동의하고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로 함.
 - 인도의 강점과 우리나라의 강점을 보완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함.
 - ※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술 등 뛰어난 기초과학에 한국의 상용화기술을 접목한다면 양국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
 -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은 하드웨어 부문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소프트웨어 부문에 강점이 있는 싱가포르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싱가포르는 한국과 핀테크, 의료,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와 협력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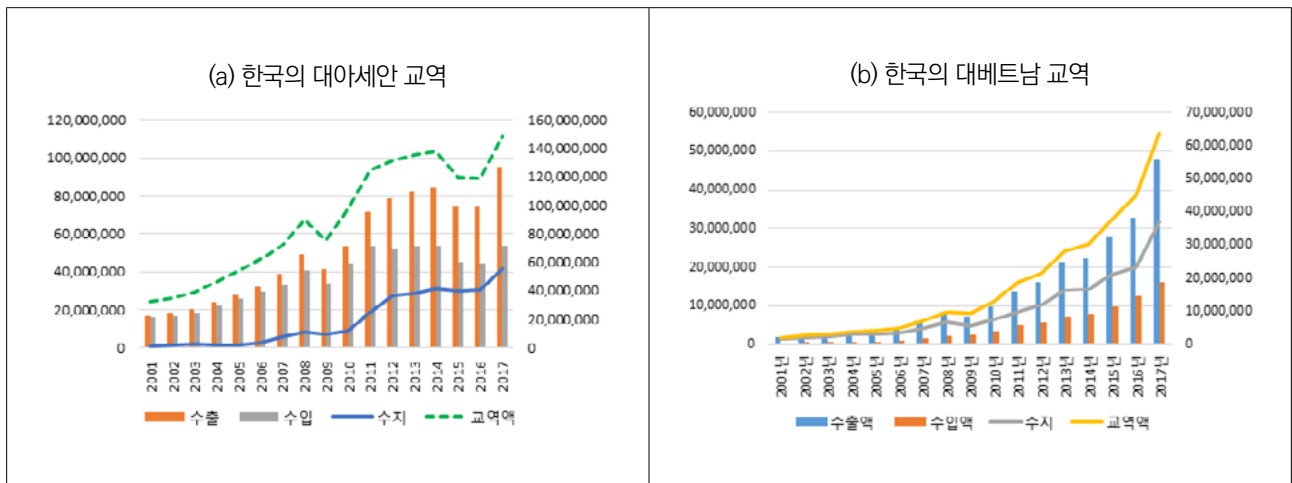
- 싱가포르의 자본과 네트워크에 한국의 기술·산업인력·한류가 융합된다면 양국은 아시아에서 이 분야의 주도국이 될 수 있음.

2.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현황

- 한-아세안 교역 확대 | 한국과 아세안과의 교역은 <그림 2 (a)>가 보여주듯이 빠르게 확대 중임.
 - 2016년 기준 한-아세안 교역액(1,188억 달러)은 한국전체 교역액의 13.2%였지만, 2017년 한-아세안 교역액(1,490억 달러)은 한국전체 교역액(1조 522억 달러)에서 14.2%로 증가했고, 2018년 10월까지 1,321억 달러를 기록함.
 - 2007년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지난 10년간 대아세안 수출은 연평균 9.4%씩 증가함.
 - 대아세안 무역수지 흑자도 연평균 22.1% 증가하여 2017년에는 414억 달러를 기록함.
-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증가는 베트남으로부터 한국은 316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전체 대아세안 흑자의 76.3%를 기록함.
 - 베트남과의 교역은 2007년 71.5억 달러였던 교역액은 2017년 639.3억 달러로 증가하여, 그 아세안 교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던 비중이 2007년에 10%였던 것이 2017년에 42.9%로 급증함(그림 2 (b) 참고).

그림 2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

(단위: 천 달러)



주: 수출, 수입, 무역수지는 왼쪽 축, 총교역액은 오른쪽 축 참조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수출, 수입, 무역수지는 왼쪽 축, 교역액은 오른쪽 축 참조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아세안 투자 확대 |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연평균 60억 달러로, 그전 10년간(2007~2006) 연평균 11억 달러 대비 5.4배 증가함.
 - 대아세안 투자의 대부분은 베트남 투자로 최근 5년간 대아세안 투자의 38.6%를 차지함.
 -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및 교역 증가는 한-아세안간 상호 경제동반자로서의 위상 강화에 기여했고, 미·중 통상 분쟁을 고려한다면 한국에 아세안의 가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표 1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단위: 백만 달러, 연평균)

구분	'97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대ASEAN	1,126	3,656	6,595	6,904	6,339	7,195	6,390	4,635	4,625	5,054	6,589	6,40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신고금액기준)

- 서비스 교역의 확대 | 경제 및 인적교류 활성화가 가속화면서 대아세안 서비스 교역도 2007년부터 16년 사이 연평균 5%씩 증가했음.
 - 2016년에는 서비스 교역 규모가 416.7억 달러로 총서비스교역에서 20.5%를 차지하여, 미국(21.1%), 중국(18.1%)에 필적하는 중요한 서비스 교역 대상지로 부상함.⁴⁾

표 2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단위: 억 달러,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감률 ('07~'16)
대ASEAN (비중)	201.3 (15.8)	257.0 (16.4)	328.2 (17.3)	237.1 (15.3)	299.7 (16.6)	341.9 (17.6)	375.6 (17.7)	392.1 (18.3)	438.0 (19.2)	429.9 (20.4)	416.7 (20.5)	5.0
세계	1,276.4	1,565.5	1,892.1	1,550.9	1,807.6	1,940.8	2,122.8	2,139.8	2,278.9	2,103.8	2,032.6	2.6

주: ()안은 대세계 서비스 교역 가운데 아세안의 서비스 교역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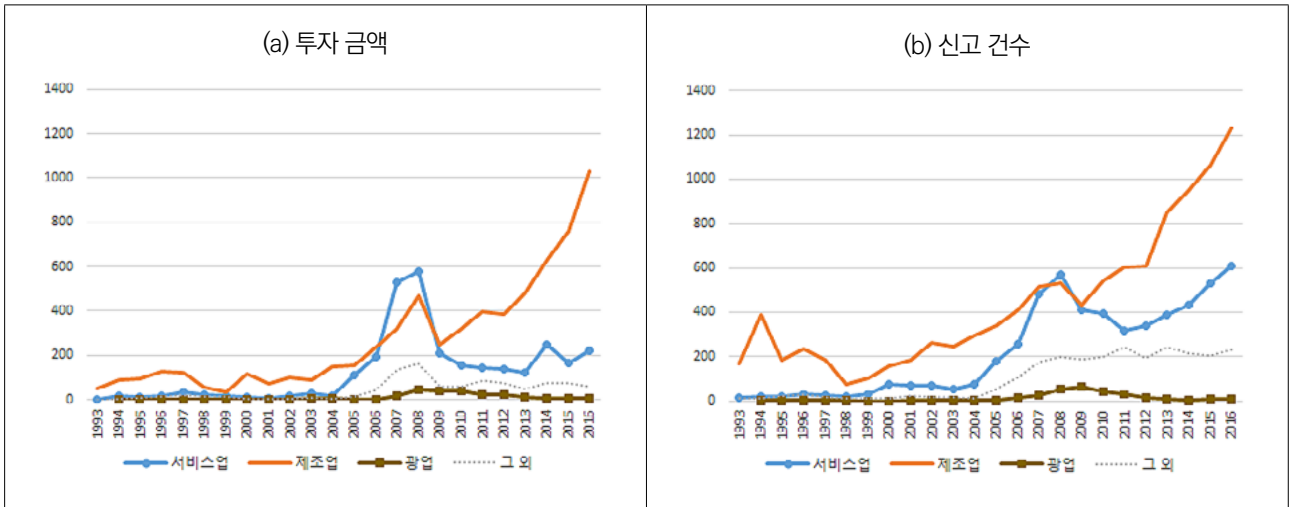
- 한국 중소기업의 대아세안 직접투자는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그림 3 참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던 중소기업의 투자는 제조업 중심으로 2010년부터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2013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삼성, LG 등 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협력업체가 진출하여 자리 잡은 이후 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업이 진출했기 때문임.
 - 광업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산업 특성상 사업규모가 크고 해당 정부의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력과 협상력으로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임.

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5)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업을 제 9차 한국표준산업 대분류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그림 3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대동남아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좌), 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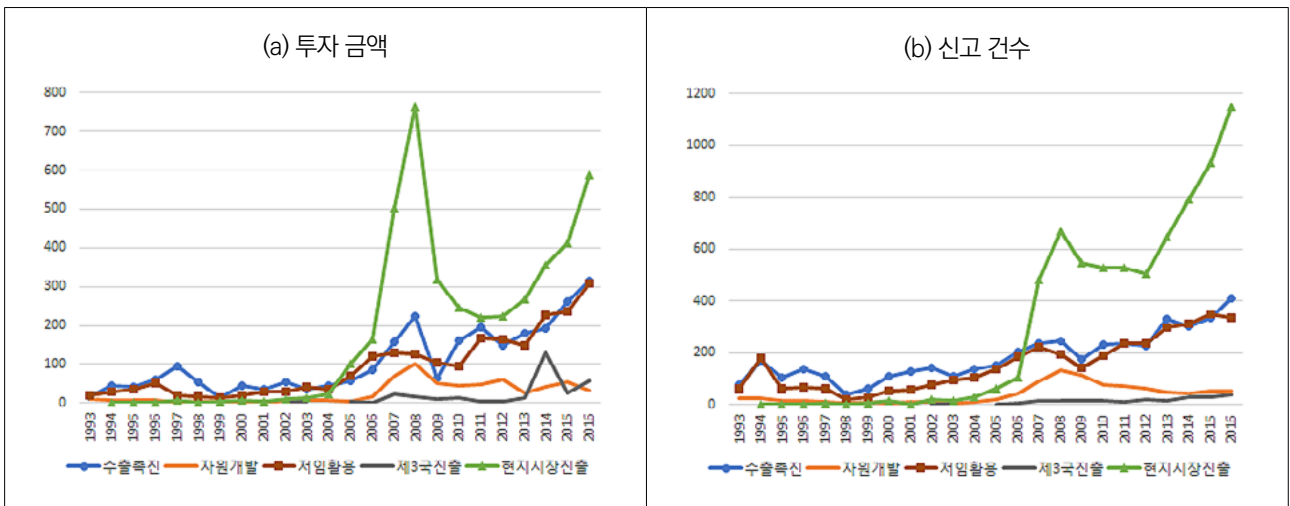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투자는 2000년 대 중반 크게 증가해 2004~2008년 투자금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51.6~352.6%를 기록했으며, 2005년 이후 투자 목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그림 4참고).
 - 1990년대 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수출촉진목적의 투자와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 또한 2011년 이후 각각 20~30% 비중을 차지해 여전히 주요 투자목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최근 들어 현지시장 진출 목적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제조 대기업을 따라 동반 진출한 협력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업 진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임(그림 3 참고).
- ※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수시장에 직접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것과는 차이가 존재함.

그림 4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목적별 대동남아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좌), 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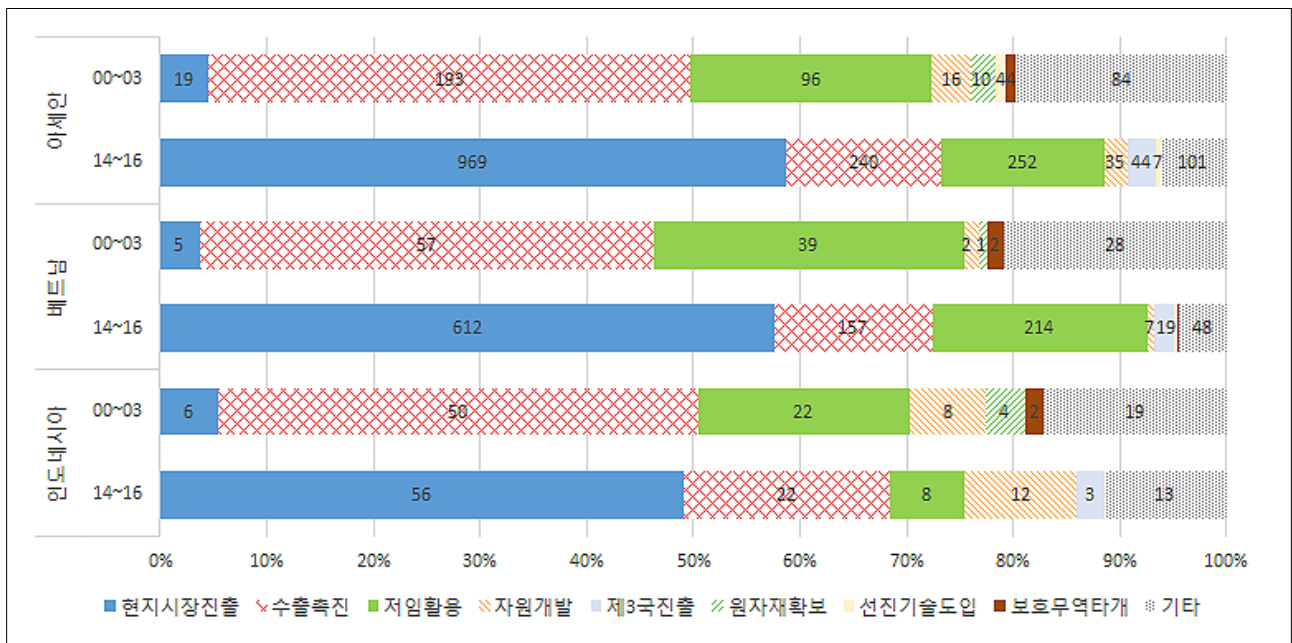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목적 변화를 2000년대 초와 최근 3년을 비교하면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비중 증가와 수출촉진 목적의 비중 감소로 요약됨.
 - 이는 동남아의 경제성장과 이로 인한 구매력 증가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 확대의 결과로 이해됨.
 - 수출촉진 목적의 감소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과거에는 현지에서 생산해 수출했다면 최근에는 현지 대기업에 납품하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임.
 -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RCEP 또는 CPTPP와 같은 메가FTA 등을 통한 역내통합 및 역외경제로의 편입노력, 그리고 이로 인한 역내생산네트워크 및 글로벌가치사슬 형성 결과임.

그림 5 한국 중소기업의 대동남아 주요 진출국별 진출목적 변화 비교

(단위: 신규법인 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설립한 현지법인의 경영실태를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수익성과 성장성을 통계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음.
 - 매출액 증가와 수익성은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한 반면, 매출액 증가와 성장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현지법인은 판단하고 있었음.
 - 동남아 현지법인의 생산, 연구, 마케팅 활동은 수익성과 유의한 관계를 발견했지만, 성장성과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음.
 - 즉 현지법인의 활동은 단기 수익성에 초점을 둔 반면, 장기 성장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현지법인대상 설문에서 현지법인의 의사결정 권한 강화는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 모기업대상 설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기업과 현지법人间 경쟁관계를 발견함.
 - 즉 현지법인의 현지화(localization)는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신남방정책의 추진과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

가. 신남방정책 추진 방향

- 중국과 일본은 이미 아세안에 막대한 인프라 자금을 공여하고 양자간 FTA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아세안은 한·중·일의 각축장이 되었음.
 - 60년대부터 시행된 일본의 아세안 투자는 아세안의 경제구조를 결정했고, 최근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아세안과 생산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음.
 - 일본은 1977년 후쿠다독트린부터 아세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고, 중국도 2012년부터 아세안과의 상생을 강조해 왔음.
 -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의 남방정책을 반성하고 중국 및 일본과는 차별화된 한국 고유의 협력 모델로 신남방정책을 제안했고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제시함.
- 신남방정책의 추진은 아세안중심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한국과 아세안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먼저 아세안 국가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아세안의 경제구조 및 기업생태계를 한국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함.
 -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세안이 과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함.
 - 또한 아세안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 일방적인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과거의 단선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인 아세안과 공동번영이 가능한 통상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협력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역과 투자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의 방향을 잡아야 함.
 - 상호 지역 연구자 육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세안 지역을 이해하고 수출증가보다는 교역확대라는 관점에서 협력정도를 평가하며, 경영권 확보보다는 장기전략으로서 신뢰에 기반한 해외투자 전략이 중요함.
-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협력국과의 상생·번영을 강조하므로, 아세안 회원국의 산업정책 형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협력국의 발전에도 기여하여 아세안 역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에 기여해야 함.
 - 후발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지원산업육성(supporting industry)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면서 한국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아세안 국가가 자국기업의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참여를 위해 설립한 경제특별구역(SEZ)안에 참여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집적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함.
- 신남방정책의 추진은 동남아에 이미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함.
 -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의 진출이 눈에 띄므로, 한국 기업이 현지시장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협력국과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간섭하기보다는 현지 기업활동의 조력자로서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해야 함.
- 이를 위해 한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 및 해소하는 원스톱창구를 마련하고, 현지 생산네트워크에 쉽게 편입하도록 현지 기업 매칭박람회를 비롯한 기업 간 교류자리 마련을 통해 현지 공급체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나.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

- 아세안은 6.5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지 않으며 소득불평등 심화를 통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아세안 회원국은 제조업 일자리를 통한 소득 분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 현재 청년들에 의한 스타트업 창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결국은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산업 육성에 집중할 전망이다.
 - 아세안의 각국 정부의 산업정책에 관심을 두면서 그에 부합하는 투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진출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려야 함.
 - 현지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
- 아세안 시장에 대한 포용적 통합적 시각에서 아세안 시장을 접근해야 함.
 - 2015년 말 출범한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과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시장을 넓게 보고, 각 회원국의 접근가능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회원국의 현황 정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전파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아세안 지역의 로컬기업과 인적자원 교류나 거래관계를 강화해 한국 중소기업이 아세안 기업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함.
 - 아세안 사람을 고용하고 분사 또는 M&A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일부로 아세안 로컬 기업을 육성하는 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아세안 각국의 거시경제적 변화에 초점을 둔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아세안 회원국의 산업정책, 유인책, 보호주의, 규제완화 등 정책변화를 살피면서 이를 반영한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기업은 새로운 변화로부터 신규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가진 집단이므로 최근 아세안 역내 변화하는 여건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요구됨.
 - 예를 들어 미·중 통상 분쟁의 장기화 전망과 더불어 미·중의 생산공장이 관세회피를 위해 아세안 지역으로 이전할 전망이므로 관련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사전에 공급체인에 참여
 - 실제 파나소닉은 자동차용 오디오를 중국대신 태국에서 생산하기로 했고, 할리데이비슨은 태국 공장을 설립했음.
- 아세안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10개 국가의 모임이므로 국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과 상품을 마련해야 함.
 -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의 싱가포르와 1천 달러 수준의 캄보디아, 라오스에서의 수요는 다름.
 - 지역 이해를 토대로 현지화 통한 현지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한다면 앞서 연구 결과에 따라 현지법인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임.

- 현지법인의 수익성 개선이 지속가능한 성장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기 수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기성장계획을 수립하고 현지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현지기업 및 소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경기변동에 따라 즉각적인 철수를 결정하기보다는, 현지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지에서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음.
 - 한국 기업만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로컬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협력 방식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이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제공해야 함.
 - 공유가치창출(CSV)을 강조하는 최근 기업 경영관과 일치할 뿐 아니라, 성장하는 아세안 시장에서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